

9/9/18

설교 제목: 북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13 장 1-16 절

- (호 13:1)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 (호 13:2)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 (호 13:3)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절관주** 호 6:4, 시 68:2
- (호 13:4)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 (호 13:5)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 (호 13:6)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 (호 13:7)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 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 (호 13:8) 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엄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 (호 13:9)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 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 (호 13:10)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 (호 13:11) 내가 분노하므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하므로 폐하였노라
- (호 13:12)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절관주** 신 32:34, 욥 14:17
- (호 13:13)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절관주** 사 37:3
- (호 13:14)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절관주** 고전 15:55

(호 13:15)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와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 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니라 **절관주** 렘 020:16, 렘 031:35, 렘 031:37, 창 49:22, 렘 20:5

(호 13:16)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엮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호세아 13 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홉 편의 설교 가운데 여덟 번째 설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받아 주시고 복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 이스라엘은 멸망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은 B.C. 721 년 앗수르 살만에셀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본문은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합니다.

1. 교만 때문입니다.

(호 13:1)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이스라엘에는 12 지파가 있었습니다.

12 지파는 야곱의 열 두 아들들 중 제사장인 레위를 빼고 그 대신 요셉에게 두 몫을 주어 요셉의
두 아들들을 포함시켜 그들의 후손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둘로 나뉩니다.

12 지파 중 10 지파가 북 이스라엘로, 유다와 베냐민 2 지파가 남 유다로 갔습니다.

이 중 북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이고 남 유다의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차남 후손들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할아버지인 야곱이 죽기 전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데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 머리 위에 얹고 축복했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실수로 그렇게 한 줄로 알고 고치고자 했으나 야곱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며 차남이 장남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 48:17)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창 48:18)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창 48:19)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한대로 번창했습니다.

본질은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떨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번성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세상에서 높아지자 교만해졌고 자신을 높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기 자신을 높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면서 입맞춤까지 했습니다.

(호 13:2)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송아지는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 년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배워 본따 이런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애굽 백성들이야 이방 나라 백성들이니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므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백성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북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호 13:3) 이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북 이스라엘이 아침 구름처럼,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쪽정이처럼,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침 구름, 이슬, 쪽정이, 연기,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쉽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룩한 번영은 아침 구름, 이슬, 쪽정이, 연기같이 헛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했음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애타하며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호 13:4)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무뎠어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3. 하나님을 잊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호 13:5)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호 13:6)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 13:7)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 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호 13:8) 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엄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호 13:9)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 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하며 힘들어 울부짖던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으며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먹고 살만해지니 이 사실들을 잊고 교만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자신들이 잘나서 된 것인 양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당신을 대적하는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배불러져 교만해진 북 이스라엘을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달려들어 찢어
놓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호 13:10)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호 13:11) 내가 분노하므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하므로 폐하였노라

하나님께서서는 "너희가 나에게 요청해서 내가 너희에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었건만 너희를
구원시킬 네 왕과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들에게 왕과 지도자들이 있었어도 그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백성들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샅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친히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옛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 16개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런 대통령이 어디 이명박 대통령 뿐입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들 중 청렴 결백한 대통령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하여금 나라를 통치하게 한 백성들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분노하셨지만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저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왕도 저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취하고 나서는 백성들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부를 쌓기에만 급급했습니다.

4.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아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를
저장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호 13:12)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호 13:13)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데 바보같은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요일 1: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यो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저장해 놓은 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산 때 아이가 나오지
않는 고통이 임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순산을 하여도 고통이 극심한데 해산 때가 되어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Good News, 복음을 선포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호 13:14)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스올'은 음부 또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속량시키고 사망으로부터 구속시키실 것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죽어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의 가슴은 긍휼이 불타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고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어 그로 하여금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지은 죄 값을 치루도록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되고 사망으로부터 구속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북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국을 선포하십니다.

(호 13:15)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 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호 13:16)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얹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면 이스라엘의 샘이 마르고 농작물들은 말라 죽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지금은 풍요를 누리며 잘 살고 있지만 결국 동풍으로 인해 황폐하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앗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로 솔로몬 이래 가장 큰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세상 재미가 한창인데 난데없이 멸망을 선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재수없는 설교가 백성들의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은 이 설교를 들은지 불과 20여년만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자격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래 죄성이 있는 우리는 좀 먹고 살만해지면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양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은 역장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배신에 대한 분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 오라고 그래야만 네가 살 수 있다고 호소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내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너희는 그냥 믿어 회개하고 돌아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는 결국 영원히 멸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이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